學問 연구와 文化 섭취에 必要하다

李 相 魯
(慶北大 敎育大學院長)

大學院課程의 입학 시험에 第二外國語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昨今에 제기된 문제도, 우리나라 대학계에 한정된 문제도 아닐 만큼 많이 論議되어 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가 大學社會 안에서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이유는 대학인들이 보는 敎育, 學問 그리고 文化에 대한 많은 시각의 차가 복합되어 그 존폐에 각기 다른 주장을 낳게 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기에 한 입시 과목의 존폐에 대한 견해 차이는 그 원인이 되는 敎育, 學問 그리고 文化에 대한 견해 차의 논의에 따라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그렇다면 第二外國語를 大學院 과정의 입시 과목으로 存續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시켜야 하는가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변인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의 목적과 제도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

둘째, 學의 성격과 기능, 예컨대 어학이나 문학을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는 도구 교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와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느냐와도 깊이 관계된다.

세째, 현대 문화나 科學의 발전, 특히 컴퓨터를 비롯한 情報 貯藏과 전환 그리고 傳達器機와 기법의 발달에 따라 교육되어야 할 내용, 즉 여러 敎科機能들의 변화에 수반되는 展望的 認識의 차이와 깊이 관계되는 점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먼저 밝히면 원칙적으로 大學院課程의 입시에는 第二外國語 중의 한 과목을 입시 과목으로 課해야 하되, 그것은 반드시 획일적으로 모든 학과나 전공 과정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강제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전술한 여러 準據에 따라 論證해 보기로 하자.

먼저 입시 제도나 입시 교과의 선정은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입시 제도나 입시 교과는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교육에, 大學入試制度나 入試敎科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에 그리고 大學院의 입시 제도나 입시 교과는 고등학교나 大學敎育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설정된 하위 학교의 敎育目標까지를 변질·왜곡시킨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大學院課程에서 第二外國語를 입시 과목에서 제외시키면 고등학교나 大學에서 第二外國語 교육이 제외되거나 설혹 제외되지 않더라도 제외된 상태에 가까울 만큼 그에 대한 교육 효과를 극소화시킨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지도급 인재나 학자를 양성하는 데 第二外國語가 공통적인 교육의 가치가

없어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이 과목의 폐지는 교육 전반에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과연 第二外國語라는 語學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는 道具敎科에 그치는 학문으로만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지도급 인재나 학자에게 必須的이거나 準必須的인 共通敎科的 가치가 상실되었느냐의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相關性이 있다. 컴퓨터를 비롯하여 정보 저장과 전환 그리고 전달이라는 現代 科學文化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계나 학계에서 점차 外國語를 경시하는 풍조가 높아가는 원인도 어학을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는 도구 교과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중세나 근세초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서구 학계에서 그리이스어나 라틴어가 重視되어 온 것은 그것을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 교과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대 서구인이 그리이스어나 라틴어를 중시하는 것 이상으로 필자가 外國語를 중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는 情報나 通信 및 交通文化의 발전에 따라 地球村이니 세계 시민이니 국제 문화니 하는 용어에 공감이 갈 만큼 과거와 현재의 관계가 아닌 현재 속의 이웃과의 관계 발전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련되는 교과라는 점이다.

특히 語學이란 의사 전달의 수단 이상으로 情緖 交換의 도구요 傳統과 慣習 그리고 民族文化의 結晶體로 그 언어가 비록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여도 그 속에 含蓄되어 있는 情態나 傳統과 慣習 그리고 그 民族文化의 보다 많은 부분이 옮겨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옮겨지지 않은 부분들은 곧 어학이 지니는 固有性이요 도구 교과 이상의 學問性이라고 볼 수 있다.

학계는 물론 외교계와 산업계 그리고 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제 학회나 국제 회의는 물론 지구촌 생활에는 自國語에 못지않게 많은 外國語의 필요성이 急進的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또한 大學院 과정이 最高敎育課程이기는 하나 그것이 記號情報를 主對象으로 하는 象牙塔 속의 학자만을 양성하는 과정을 넘어 폭 넓은 指導的 實踐人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것은 더욱 더 熟考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세번째의 문제는 컴퓨터 科學, 通信科學을 비롯한 情報의 貯藏, 轉換 그리고 傳達에 관련된 현대 과학은 조만간에 第二外國語를 학습하지 않아도 삽시간에 그 모두가 自國語나 第一外國語로 옮겨져 전달될 수 있기에 불필요하다는 논리에서 유래된 不必要論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現代 科學文化의 기법을 통해 外國語가 아무리 삽시간에 자국어로 옮겨져 전달된다 하더라도 앞에 言及한 바와 같이 原語 속에 默示的으로 含蓄된 情態나 慣習 그리고 그들 民族文化의 結晶體들은 옮겨질 수도 전달될 수도 없을 것이라는 推論을 강조하고 싶다. 第二外國語를 제외시킴으로써 더 중요한 다른 분야를 보다 많이 학습시킬 수 있고 第二外國語에는 미숙하나 전공에 보다 유능한 인재를 大學院課程에 迎入시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人間의 능력은 무한에 가깝고 그것은 개개인의 노력과 학습 시간의 확대 그리고 능률적인 학습 방법의 개발에 맡기면 되기 때문이며 中核的인 문제는 그 교과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도 필자가 왜 第二外國語가 모든 교과나 전공 과정에 획일적으로 賦課되는 것은 排除하느냐의 문제이다.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교육이나 학문의 자유와 자율과 같은 일반적인 원리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學의 槪念 變遷과 分化라는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세초에 西歐 大陸學派들 사이에 學에 대한 嚴密性을 주장하면서 學을 技術과 엄격히 구분하고 고유의 대상과 방법이 갖추어진 순수 과학, 기초과학 등만을 學으로 주장해 왔으나 經驗主義와 實用主義의 발전에 따라, 특히 미국을 주축으로 하여 많은 實用分野, 應用分野, 技術分野 그리고 生活分野에 이르기까지 學

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가며 學의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하나였던 학문 분야가 한없이 分化되고 分科되어 왔다. 또 한편으로는 분야간의 영역을 모아 하나의 독립된 체제를 갖추어 가며 學의 대열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學으로서 행세해 오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점에서이다. 따라서 많은 學科 또는 專攻 중에서는 第二外國語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그런 분야에까지 第二外國語를 입시 과목으로 강요해서도 강요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第二外國語를 배제해야 할 학과나 전공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며 第二外國語가 入試科目으로 채택되는 大學院課程의 학과나 전공이 극소화되어 가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

<投 稿 案 內>

「大學敎育」 제43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敎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硏究 및 敎授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敎授談論 ③ 學科別 敎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89년 11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議會 (전화 783-3891, 3067)
6. 附 記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